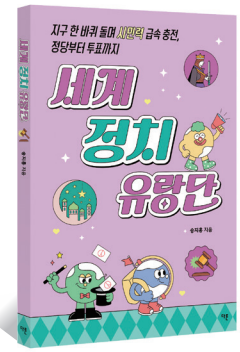
WEEKLY HOT BOOKS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치 지식과 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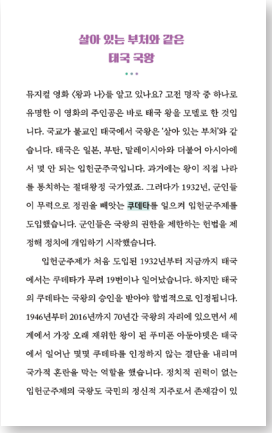
〈세계 정치 유랑단〉

지은이 승지홍
펴낸곳 도서출판 다른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흔히 '어렵거나 잘 모르는 일'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 정치는 모든 일상의 토대로, 우리는 좋든 싫든 정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 인권을 지키는 제도를 만드는 일,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일 모두 정치 활동에 속한다. 그래서 정치는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준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나라는 물론 중동과 유럽, 지구 반대편의 아메리카 대륙과 남반구의 호주까지 지구 곳곳을 유랑하듯 돌아다니며 세계 각국의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정치 제도를 소개한다. 정치의 개념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인기 작가이자 현직 교사인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 시험에 나오는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이슈와 인권 문제, 세계 시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평소 국제사회와 민주주의,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물론 정치를 통해 세상을 넓고 깊게 보길 원하는 청소년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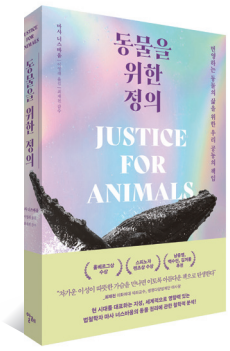
살아 있는 부처와 같은 태국 국왕

유지컬 영화 〈왕과 나〉를 알고 있나요? 고전 명작 중 하나로 유명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태국 왕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국교가 불교인 태국에서 국왕은 '살아 있는 부처'와 같습니다. 태국은 일본, 부탄,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입헌군주국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왕정 국가였죠. 그러다가 1932년,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쿠데타를 일으켜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습니다. 군인들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을 제정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입헌군주제가 처음 도입된 1932년부터 지금까지 태국에서는 쿠데타가 무려 1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쿠데타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1946년부터 2016년까지 70년간 국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 된 푸미폰 아둔야뎃은 태국에서 일어난 몇몇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 결단을 내리며 국가적 혼란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없는 입헌군주제의 국왕도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감이 있

책 읽을 마음을 다잡는 것만큼 읽을 책을 고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학생들 혹은 온 가족이 함께 읽어도 좋을 새로운 책을 〈내일교육〉이 꼼꼼히 살펴 소개합니다. 격주로 찾아올 두 권의 새 책, 기대해주세요._ **편집자**

동물 권리에 관한 철학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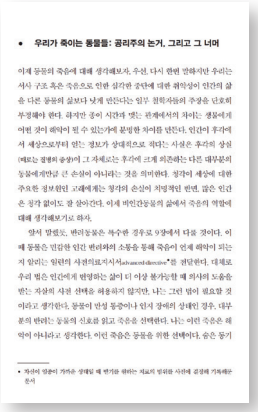


〈동물을 위한 정의〉

지은이 마사 누스바움
펴낸곳 알레

세계적인 법철학자이자 미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손꼽히는 마사 누스바움이 이번엔 동물의 권리를 주제로 책을 썼다. 최고의 철학가와 사상가에게 주어지는 홀베르그상 수상자인 지은이는 학대받고 고통받는 생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법률단체의 변호사로 일하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이 지구의 다양한 생물과 윤리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생물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많은 동물의 상황을 개선하고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의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국제 조약 체결과 법적 지위 보장, 그리고 엄정한 연구와 저널리즘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동물의 역량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선택을 할 것을 희망한다.



• **우리가 죽이는 동물들: 공리주의 논거, 그리고 그 너머**

이제 동물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다시 한번 말하자만 우리는 사시 구조 혹은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공단에 대한 화학실이 인간의 삶을 다른 동물의 삶보다 낮게 만든다는 입무 철학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부정해야 한다. 하지만 동이 시간과 맺는 관계에서의 차이는 생물에게 어떤 것이 해악이 될 수 있는가에 본질적한 차이를 낸다다. 인간이 우리에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은 주가의 상실 대로는 결행의 숨상이며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크게 의존하는 다른 대부분의 동물에게만큼 큰 손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각이 세상에 대한 주요한 정보원인 고래에게는 청각의 손실이 치명적인 반면, 많은 인간은 청각 없이도 잘 살아간다. 이제 비인간동물의 삶에서 죽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양식 방법도, 반려동물은 특수한 경우로 9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때 동물은 인감을 인간 반려자의 소동을 통해 죽음이 언제 해악이 되는지 알려는 일련의 사전의료지시advanced directive*를 전달한다. 대체로 우리 밖은 인간에게 번영하는 삶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의 사전 선택을 허용하지 않지만, 나는 그런 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물이 만성 통증이나 인지 장애의 상태인 경우, 대부분의 반려는 동물의 신호를 읽고 죽음을 선택한다. 나는 이런 죽음은 해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죽음은 동물을 위한 선택이다. 슬픈 동기

* 자신이 생존이 가능을 상태일 때 번기를 대리는 지료지 방리를 사전에 준정해 기록해둔 문서